

## 지방자치단체 민선8기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축  
당선

강화군수



무소속 유 천 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셔서 다시 강화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영광된 기회를 얻었습니다.

모두 강화군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강화군에는 2024년 착공되는 강화~계양 간 고속도로의 강화기점 우선 추진 및 조기 완공, 국도 48호선 마송~강화 도로확장 및 교동까지 연장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것은 강화군의 산적한 과제와 현안들을 능수능란하게, 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강화군을 발전시키고 군민 행복을 책임지라는 명령으로 받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4년, 강화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없는 길도 만들어서 가겠다는 자세로 일해왔습니다.

앞으로의 4년도 오직 강화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 나가겠습니다.

천금 같은 기회를 주신 만큼 분골쇄신의 자세로 강화군의 재도약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  
당선

인천시의원



국민의힘 박 용 철

안녕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인천시의원 당선인 박용철 입니다.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 들에 게 머리 숙여 가슴 깊이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이제는 오로지 강화군 발전 하나만 보고 전진할 것입니다.

선거로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만들고, 강화군민의 풍요롭고 행복한 강화군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욱 정진하여 늘 함께하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천시의원 "당선인" 박용철 올림



# 강화군의원 가선거구 당선자



국민의힘 박승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한표 한표의 소중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일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 한승희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강화군의회 (가) 선거구 군의원으로 당선된 한승희 인사드립니다.  
'출마예정자'에서 '예비후보자', 그리고 '후보자'와 오늘의 '당선인'이 되기까지 큰 사랑과 응원 보내주시며 곁에서 함께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 한승희 앞으로의 4년, 오롯이 우리 강화군과 우리 강화군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서 [유천호 강화군수님]과 함께 [강화발전 반드시 해내는] 의원이 될 것입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의정활동 열심히 잘 해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오현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의회의원 당선인 오현식입니다.

저 오현식에게 행사해주신 소중한 한표 한표의 의미와 무게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겸손"과 "경험", "능력"으로 일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이 저 오현식을 선택해주신 것에 한 점 후회도 남기시지 않도록 분골쇄신하여 달리겠습니다!  
이겨내는 군의원을 넘어 잘하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달릴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 강화군의원 나선거구 당선자



국민의힘 배충원

존경하는 강화 군민여러분!  
강화군 군의원으로 당선된 국민의 힘 배충원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에게 소중한 한표로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동안 군민과 소통하면서 많은점을 배웠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숙고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4년간 강화를 위해 앞장서 나아갈 것이며, 군민을 섬기고 경청하며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최중찬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강화군 의원 선거에 당선된 최중찬입니다.  
강화군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치”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약속 꼭 지키며 항상 주민의 작은 말씀에도 귀 기울이고 발로 뛰겠습니다.  
강화군은 잠재적인 성장 동력이 매우 큰 편이지만, 노인 인구가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소통,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한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 그리고 혁신적인 생각을 토대로 지역환경과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쳐나가야만 합니다.

강화군의 환경에 알맞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개인 사업과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배운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화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앞으로 최중찬의 10대 공약 이행과 의회의 역할인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 결산안 승인과 청원, 진정을 처리하고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대한 동의, 승인 등을 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발전하는 강화를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흥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고복숙

당비례대표

군민여러분들의 사랑과 지지에 힘입어 당선된 국민의힘 강화군 비례대표 고복숙 인사 올립니다.

이 모두가 군민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민들의 마음 늘 간직하고 언제나 초심을 잃지않고 일관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들의 말씀에 귀기울이겠습니다.

강화군민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o^

# 지방자치단체 민선8기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 인천광역시



국민의힘 유정복

민선 8기 인천시장에 저를 뽑아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광스럽고 그 막중함에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는 저의 승리를 넘어 시민 행복·인천발전을 염원한 위대한 시민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진실이 거짓과 흑색선전을 이긴 선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오직 시민행복과 인천발전 만을 위해 땀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것이 시민들께서 저에게 내린 엄숙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시민은 300만 시민 모두입니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선거과정에서 반대하거나 지지한 시민 모두 저에겐 시민입니다.  
 시민의 뜻과 마음을 받들 것입니다.  
 소래포구에서, 계양산 전통시장에서, 석남동 거북시장에서, 용현시장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입으로, 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눈물도 핑 돌았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오직 시민을 위해 죽도록 일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시민들의 그 눈빛! 늘 가슴에 담아 새기겠습니다.  
 40여년의 공직생활을 하며 갈고 닦은 자질과 역량, 경험을 쏟아붓고 공직자로서 흐트러짐없이 오직 시민 행복을 위해, 인천 발전을 위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죽도록, 미치도록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시민과 저의 꿈,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조성'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 인천광역시 구청장·군수 당선자



계양구  
더불어민주당 윤 환



남동구  
국민의힘 박종효



동구  
국민의힘 김찬진



미추홀구  
국민의힘 이영훈



부평구  
더불어민주당 차준택



서구  
국민의힘 강범석



연수구  
국민의힘 이재호



중구  
국민의힘 김정현



강화군  
무소속 유천호



옹진군  
국민의힘 문경복

# 유천호 강화군수

## “오직 강화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신명을 다할 것”

### 강화군, 6월 월례조회·확대간부회의 개최 / 민선 7기 성과 위에 민선8기 군정 완성



강화발전을 완성해 다른 지역이 부러워하는 살고 싶은 강화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기간 중 여실하게 드러난 지역을 병들게 하는 사회적 갈등과 편가르기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 이를 감내하면서 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민선 7기의 성과를 마무리하는 역점사업을 점검했다. 읍·면별 현안보고를 시작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보훈사업 추진현황 ▲폭염대비 취약계층 보호대책 ▲가뭄 장기화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현황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 ▲주문연도교 건설사업 등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진행사항을 공유했다.

유천호 군수는 “민선 7기 성과와 구상한 계획을 기반으로 일자리가 풍족한 강화, 교통이 편리한 강화군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앞으로의 4년도 오직 강화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만을 바라보고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말했다. [1]

민선 8기 재선에 성공한 유천호 군수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월례조회’와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유천호 군수는 월례조회에서 “민선 8기는 군민 모두가 희망하는

##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숭고한 정신, 잊지 않습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 관내 기관·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 화읍 전자산 현충탑 광장에서 추념식을 개최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개최된 이날 참배는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국 동시에 울리는 묵념 사이렌 취명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해병제5여단 장병들의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시 낭송 순으로 진행됐다.

유천호 군수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물질적 풍요는 그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공자들이 전국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 최백하 기자

2022년 ‘제67회 현충일’을 맞아 유천호 군수를 비롯한 강화군 보훈단체장,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군의원, 해병제5여단장, 강화

#### Photo NEWS 내고향을 훈훈하게 지키고 가꾸는 사람들



# 주문연도교 건립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 '쾌거'

## 주문도와 아차도를 연결하는 '주문연도교' 정주여건 개선 기대

유천호 강화군수는 주문연도교 건설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주문도와 아차도를 연결하는 '주문연도교'가 들어선다.

주문연도교 건설사업은 지난해 10월 낮은 경제성으로 인한 사업 추진 등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이에 강화군은 인천시 및 외부기관 등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등을 찾아 발로 뛰며 재검토 결정 후 8개월 만에 심사통과의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사업으로 교통, 생활, 교육, 공공서비스 등의 도서지역 불편이 해소되고, 뒷장술해수욕장, 대빈창해수욕장, 꽃지해변, 봉구산 등 관광지 접근성이 개선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강화군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주문도와 아차도를 연결하는 주문연도교(L=0.55km, 2차선) 건설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본 사업에는 향후 5개년 동안 사업비 300억 원(시비 150억 원, 군비 150억 원)이 투입된다.

한편, 군은 불음도와 아차도를 연결하는 불음연도교 건설사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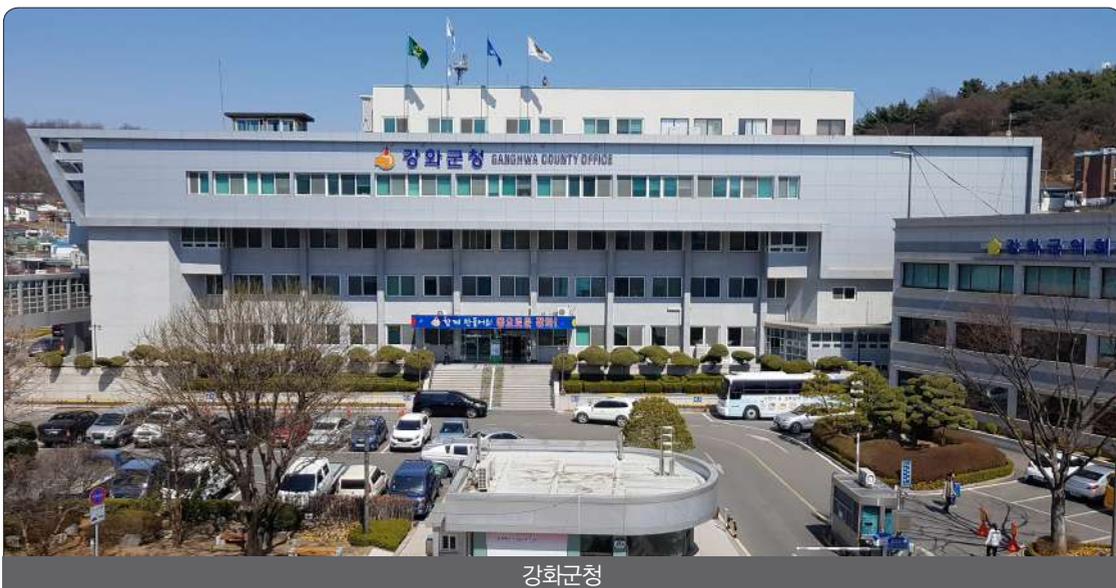
주문연도교 조감도(사진제공 강화군청)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가재정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서도면의 도서지역은 강화본도와 뱃길로 떨어져 있으며 민통선과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낙후된 실정이다”며 “열악한 지역 주민들의 기초적인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1]

## ‘착한 임대인’ 지방세 최대 200만원 감면

###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 대상



강화군청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에 나섰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은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경제 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감안해 지난 4월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올해까지 감면 혜택을 연장했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2022. 6. 1.) 이전에 임대료를 인하였거나, 인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이다.

지방세는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대해 오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된다.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인하 합계 금액을 3개월로 환산해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감면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료 인하 전·후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 거래내역,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강화군 재무과(☎032-930-3282)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납기 후에도 연말까지 감면 신청을 하면 올해에 부과한 재산세에 대해 감액·환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1]

- 최백하 기자

# 강화군, '서도면 단기 발전 계획' 사업 순항

## 권영현 군수 권한대행, 본격 사업 추진에 앞서 사전 점검



권영현 군수 권한대행 '서도면 단기 발전 계획' 현장 점검(사진출처 강화군청)

하는 '서도면 단기 발전 계획'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화군 건설과는 ▲서도 연도교 건설사업(740억 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118억 원) ▲하수도관리 및 개발사업(128억 원) ▲방조제 관리사업(17억 원) 등을 맡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민들의 기대가 큰 '서도 연도교 건설사업(740억 원)'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도면 단기 발전 계획'은 4개 분야, 17개 사업으로 ▲삶의 질 분야 2개 사업(30억 원) ▲관광 분야 6개 사업(23억 원) ▲기반시설 확충 분야 5개 사업(1,022억 원) ▲기타 분야 4개 사업(8억 원) 등에 사업비 1,084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권영현 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강화 본도와 뱃길로 떨어진 서도면 사업현장을 찾아 구석구석을 살피고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강화군은 접경지역 발전 및 지역 군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

권영현 권한대행은 "주요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인천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며 "서도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강화작은영화관' 재개관

### 리모델링을 통해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 / 최신 개봉영화 상영, 문화격차 해소



강화작은영화관(사진출처 강화작은영화관)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노후된 영상장비를 교체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보강해 오는 8일 '강화작은영화관'을 재개관했다.

'작은영화관'은 스크린이 1개, 좌석수 87석으로 작은 규모이지만 시간대 별로 다양한 최신 영화를 상영해 군민 여가 문화의 중심공간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0년에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을 중단했다.

운영시간은 12시부터 22시까지로 연중 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4회 상영한다. 관람요금은 2D영화는 6천 원, 3D영화는 8천 원으로 시중보다 저렴하다.

첫 상영 영화는 '마녀2'와 '버즈 라이트이어'이며, 영화시간 확인과 예약은 '강화작은영화관' 홈페이지(<https://ganghwa.scinema.kr/>)

에서 할 수 있다. 단체 관람을 원할 경우 일주일 전에 미리 연락을 하면 영화와 시간을 선택해 볼 수 있다(☎032-934-7717).

군 관계자는 "휴관 기간에 리모델링을 통해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했다"며 "작은 영화관이 군민들의 문화공간이자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 웰니스 관광지 마니산 ‘치유의 숲’에서 힐링하세요

숲 체험 프로그램, 청량한 여름 자연 속 에너지 충전 / 11월 말까지 매주 주말 10시, 13시에 무료로 진행



마니산 '치유의 숲' (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은 민족의 영산인 마니산에서 안정된 기분 상태에서 숲의 치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니산 치유의 숲’은 ‘소나무 피톤치드 길’을 중심으로 한층 녹음진 푸른 숲에서 서해바다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닷바람을 느끼며 천천히 걸으며 마음 속의 불안감과 우울함을 떨쳐 버리기 좋은 장소이다.

‘숲 체험 프로그램’은 1시간 30분 코스로 숲 해설사와 함께 마니산 치유의 숲을 걸으며 피톤치드 느끼기, 기체조 등 체험을 할 수 있다.

숲 길을 따라 계절을 느낄 수 있는 들꽃과 교감하고 건강을 돌보며, 마니산에 얽힌 단군 이야기를 즐길 수 있도록 ‘치유의 숲’ 중간 중간에는 ‘참성단 조형물’, ‘천부인 광장’, ‘단군 놀이터’ 등이 조성돼 있다.

내친김에 숲에서 이어진 참성단으로 오르는 등산로를 따라 918개의 돌계단을 올라가노라면 넓은 들녘 너머 서해바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수 있다.

지난해 새롭게 문을 연 ‘한겨레 얼 체험관’에서는 단군 신화의 의미와 흥인인간의 정신을 이어온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통을 느낄 수 있다.

한편, ‘마니산 치유의 숲’은 인천광역시가 선정한 웰니스 관광지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웰니스 관광지는 육체, 심리, 정신적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과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여행지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함과 불안함을 해소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를 돕기 위해 ‘숲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가족과 함께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마니산에서 숲과 바다, 그리고 강화도의 매력을 흠뻑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보이스 피싱 예방만이 최선! 피싱사기 피해!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최근 관내에서 보이스 피싱 수법이 날로 정교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피해자가 늘고 있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해 SNS, 현수막 등을 통한 피해예방 행동요령 홍보 등을 통해 피싱사기 근절에 나섰다.

### 피해예방 행동요령

-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일절 응대하지 말 것
-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보이스 피싱을 의심할 것
-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것

문자메시지에 있는 의심스러운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URL)등은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실수로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삭제하고 비밀번호 등의 금융관련 개인정보 입력을 하면 안 된다.

이미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은행(고객센터) 또는 경찰(☎182), 금융감독원(☎1332)으로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기관 사칭과 저금리 대출상담, 특정 앱 설치 유도에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112로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 보이스피싱 예방법

경찰청 mail.police.go.kr 인천 강화경찰서 032-930-0112

**1.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니 신분증을 보내주세요!**

문자에 있는 인터넷주소를 누르면 악성앱이 깔려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돼요!

인터넷주소  
 APP설치  
 클릭금지

\* 정부,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요!

**2. 핸드폰 고장을 빙자한 자녀사칭 문자 수신 시?**

자녀에게 **확인전화** 반드시 해보기!  
바로 입금보단 경찰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하기!

\* 속아서 앱을 설치한 경우라면? 바로 삭제 후 112 신고!

**3.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및 피해현황**

피해건수

2017 2018 2019 2020 2021  
피해 건과 금액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인터넷진흥원 118

# ‘어촌뉴딜 300’

## 강화 ‘창후항 어촌뉴딜사업’ 순항

- 현재 공유수면매립 공정률 5% ... 매립 목적 및 계획에 맞게 정상 추진 -



창후항 어촌뉴딜사업 공유수면매립 현장(사진제공 인천시)



창후항 어촌뉴딜사업 공유수면매립 현장(사진제공 인천시)

강화군의 ‘창후항 어촌뉴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창후항 공유수면매립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규정·절차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창후항 어촌뉴딜은 강화군 하점면 창후항 공유수면을 약 1,675.17㎡ 규모로 매립한 후 어항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약 18억 원의 강화군 예산이 투입되며 2023년 9월 27일 매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창후항 어촌뉴딜사업 현장을 방문해 △매

립면허의 내용의 이행 여부 △매립실시계획 내용의 이행 여부 △기타 주요사항 등을 점검했다.

지도·점검 결과, 매립작업의 현재 공정률은 5%로 매립실시계획 내용에 포함된 사업계획서·설계도서 등과 부합하게 사업이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

강화군 담당자는 “당초 매립작업 완료 시기를 내년 9월말까지로 계획했으나 본격적으로 매립사업이 시작되면 올해 안으로 조기준공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1]

## 인천시, ‘어촌뉴딜 300’사업 관계자 역량제고

- 6월 9-10일, 사업관계자 역량강화 연찬회 실시 -  
- 전문가 교육자문 통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 기여 -



예비종합계획도(강화군 외포항)

으로 지역협의체 대표, 주민, 공무원 및 유관기관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충남 서산시 증왕항 등 어촌뉴딜 사업 성공지역 견학을 시작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어촌뉴딜사업 우수사례 및 어촌뉴딜S/W역량강화 사례발표 △2022년 사업대상지인 중구 덕교항, 강화군 외포항, 옹진군 두무진항의 기본계획 발표 △자문위원들의 자문 및 관계자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총 사업비 1,625억 원을 투입해 16개소의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3개소(중구 덕교항 12,980백만원, 강화군 외포항 11,566백만원, 옹진군 두무진항 14,353백만원) 사업을 추진해 2024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연찬회에서 모아진 좋은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올해 9월 예정인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기본계획 심의 절차에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사업 대상지 3개소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인천시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관계자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충청남도 서산시 청년수산학교 일원에서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연찬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찬회는 ‘2022년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을 통해 시장개방 확대, 수산자원 고갈, 어업경비 상승, 고령화 등 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

# 고려시대 황궁의 옛터를 모티브로 마을지도를 만들게 된 이야기



김형식  
강화이야기투어 대표이사

강화의 매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화산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강화읍 원도심은 많은 문화유산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강화산성 사대문 즉 동, 서, 남, 북문이 현존하고 있으며, 고려궁지, 성공회강화성당, 용흥궁 등의 문화유산은 많은 관광객을 원도심으로 불러오는 침병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광도시로서 자랑할 만한 멋진 공간이라는 것이 강화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황궁옛터 마을지도를 만들게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강화읍 원도심의 문화유산을 8년동안 약 1만여 명의 관광객에게 안내하고 해설하다 보면 늘 “강화도에 이런 곳이 있었네?”, “이런 좋은 곳을 잘 알 수 있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강화읍 원도심을 왜 사람들은 몰라줄까?’ ‘쉽게 이 강화읍 원도심을 알릴 방법은 없을까?’ 라는 문제를 7년 동안 고민해 오면서 공무원분들과도 상의를 해보기도 하고, 마을 주민 분들과도 의논을 해보기도 했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강화읍사무소에 자리하고 있던 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주민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브랜드가 있는 마을지도를 만드는 방안이었습니다.

강화읍 원도심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마을 지도를 만드는 것이 그 방안이었습니다. 다른 유명한 관광도시를 보면 ‘전주한옥마을’ ‘북촌한옥마을’ ‘안동하회마을’ 등의 마을 이름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 마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공동체가 자신을 표현해 주는 이름이 없다는 것은 브랜드가 없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강화읍 원도심은 다들 잘 아시는 고려궁궐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궁지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고려시대의 왕궁터는 대한민국에서 강화읍 원도심만이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려황궁옛터마을’이라는 브랜드로 마을지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부족한 점이 많은 마을지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강화읍 원도심의 정체성을 담은 그릇으로 하나씩 보완을 해나가다 보면 우리 강화읍 원도심이 전국적으로 확실한 인지도를 갖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려황궁옛터 마을지도를 만드는데 도와주신 강화군청 관계자 분들과 강화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코디님들 그리고 지도를 만드는데 참여하신 스텝분들, 그리고 조언을 해주신 여러 마을 주민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벽하 기자



강화와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되셨나요?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강화읍 원도심과 저와의 인연의 시작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IT분야의 영업마케팅을 업으로 살아왔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2014년 고객사 업체로부터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전기자전거를 기반으로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보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수원시, 남양주시, 강화군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각 지자체에 보냈고, 그중 강화군청이 가장 빠른 반응과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담당 공무원분들의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도움으로 강화읍에 관광 상품을 만드는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8년간 회사운영은 적자였지만 계속해서 투자를 해오고 있는 이유는 강화도가 갖고 있는 가치와 매력이 너무나도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고려황궁옛터 마을지도는 강화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주민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기고

## 인천형 혁신학교가 계속 필요합니까?



이 대 형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인천형 혁신학교인 '행복배움학교'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교육계는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에 혁신학교에 기대했던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인천형 혁신학교인 소위 '행복배움학교'의 존속 및 지속 여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음을 인지하고 교육청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처음 행복배움학교를 시작했을 때의 기대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다음의 기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20세기 교실에서 19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공교육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 속에서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를 만드는 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학교로서 행복배움학교(이하 행복학교)가 시작되었다. 과연 이 기대는 이루어졌을까? 행복학교는 일반학교와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 학급당 인원수도 적고, 행정 인력도 더 지원 받는다. 이런 혜택이 지속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까지 행복학교를 유지할 것이며 일반학교로 전환되었을 때에도 이런 성과가 가능할 것인가?', 또한 '이를 일반학교로 확산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행복학교에 지원되는 각종 혜택은 일반학교의 희생 속에서 주어진 혜택임을 명심해야 한다.

즉 인천의 모든 학교에 동일한 조건을 제공할 수 없다면 행복학교의 모든 성과는 '그들만의 리그'에서의 성과에 지나지 않는다. 공교육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혁신학교의 성과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조건에서의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처음부터 모든 학교에 동일한 조건의 혜택을 부여해야 마땅한 일이다. 학교간의 차별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행복학교의 증대는 마땅히 제고되어야 할 정책이다. 행복학교의 증대는 주변 학교의 교육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주적 학교운영체제를 바탕으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학생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며 학생들은 자존감을 키우고 창의적 교육과정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성장시키는 학교라는 기대이다.

초기 행복학교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운영되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교육 매뉴얼이 등장하기를 모두 기대하였다. 학교가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지만 의사결정이나 기타 민주적 학교 운영 등을 담보하는 모델 학교로서의 역할을 모두가 기대하였으리라 생각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일례로 초기 행복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의 타 행복학교로의 전출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고 최대 50%까지 가능한 초빙 비율도 절반 정도만 채워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행복학교의 근무가 교사에게는 그리 행복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우리의 기대대로 행복학교가 주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면 행복학교는 많은 행정적 지원과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모두가 되고 싶은 학교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교육 환경을 지향하는 교사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행복학교 근무가 실제적으로 교사에게는 매우 버거운 일이라는 증빙이 된다. 이는 초기 행복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들이 요구하지 않던 인사상 혜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초기의 거창한 기대와는 다소 어긋나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런 시스템을 일반학교에 적용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누군가는 행복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 행복을 배우겠다는 시도 자체가 어떤 목적을 지니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교육공동체가 행복을 느끼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교에서 행복을 배우려는 시도 보다는 학교 시스템이 교사나 학생에게 행복을 느끼도록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행복학교가 왜 필요한 것인지를 일부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행복학교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다시 한 번 '우리에게 행복학교는 꼭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 본다. 이제 교육청은 이 물음에 대한 대답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1

##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모교육

##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 우리아이 '성교육'

6.30(목) 행복센터 3층 오전 10시

대 상	강화 관내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 청소년 지도자
일 시	2022.06.30(목) 오전 10시
장 소	강화군 행복센터 3층 남산마을 주민회의실
강 사	박경진(마음교육상담센터 센터장)
내 용	사춘기 성문화 이해, 연령별 성교육, 성교육 Q&A
신 청	전화또는 QR코드, 선착순 50명
전 화	032)933-1388, 평일 9:00~18:00



# 다시 일상으로, 이제는 ‘학교폭력 백신’



화도초등학교 학교폭력예방교육(사진제공 강화교육지원청)

나는야 마음 지킴이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고, 중·고등학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걱정마,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바른 언어 사용과 평화로운 학교를 꿈꾸는 부채 만들기, 고학년은 언어폭력을 줄이기 위한 ‘금지어 달력 만들기’ 활동을 했으며 중·고등학교는 O·X퀴즈, 가해자 및 피해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작성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은 “헛갈리는 내용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고, 대처 방법과 지원 기관을 알게 되어 좋았다. 교육을 더 받고 싶다.”라며 만족을 표현했다. 유복현 미래교육지원센터장은 “교실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이 폭력 예방의 백신 역할을 하여 학생들이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Wee센터는 5월 9일부터 27일까지 관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였다.

이 교육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Wee센터 상담교사가 신청 학교에 내방하여 대면 강의로 진행된다. 총 10개 학교·30개 학급에서 교육을 신청하여 약 54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의 실태를 반영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초등학교는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지키자! 우리의 마음,



걱정마, 너의 잘못이 아니야!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강화Wee센터

## 건·강·참·살·이 인자한 미소의 올해 103세 김귀현 어르신을 만나다.



장수상을 들고계신 김귀현 어르신과 아들 내외

강화읍 서문안길에 거주하시는 올해 103세(1920년생)가 되신 김귀현 어르신은 강화군으로부터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을 받았다. 군으로부터 장수축하금을 받으시는 올해 1922년 이전에 출생하신 어르신 28명 중 강화읍 도시재생 사업 관청7리 새뜰사업 추진위원장으로 공헌을 하신 박충양님의 모친인 김귀현 어르신을 만나 뵈 수 있었다.

### 김귀현 어르신의 장수비결은 무엇일까?

100세가 넘으신 연세에도 별다른 지병이 없으신 김귀현 어르신은 평소 새벽 5시에 기상을 하시고, 하루 3끼를 소식으로 빠짐없이 챙겨 드신다고 한다. 음식은 맵거나 짜지 않게 드시고, 돼지고기와 유제품을 즐겨서 드신다고 하시며, 어르신 방문 앞 냉장고에는 3가지 종류의 유산음료가 빼곡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특별히 챙겨드시는 음식은 없으시고, ‘소식’하시는 걸 장수의 비결 중 하나일 것이라 추측하셨다. 음식을 조금씩 여러번에 나눠서 드시는 경우도 많으셨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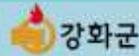
어르신은 장수의 비결 중 유전적 영향이 큰 비중이 크다고 하신다. 1970년대의 한국 여자 평균수명은 65.5세인데 비해 김귀현 어르신의 친모는 87세, 외조모님은 84세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2020년 통계청 발표,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 83.3세보다 더 오래 사신셈이다.

요양원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며느님(배인숙)은 김귀현 어르신의 성격이 평소 과묵하시면서 참을성이 많으시다고 전했다. 이런 어르신의 성격이 평소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면서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장수의 비결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어르신은 따로 즐기는 운동이 없으셨으며, 과거 기력이 좋으셨을 때는 손자·손녀들을 업고 매일 산책을 다니시던 것 외엔 평소 소파에 앉아 계시거나, 누워계실 때 발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시면서 다리운동을 부지런히 하신다고 하시며 평생 지병 없이 장수하는 삶의 비결로 항상 마음을 편하게 먹고, 내려놓는 습관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강화군청이 실행하는 복지에 너무 만족함을 느끼시며,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시다고 한다. 그리고 강화군에서 보내준 장수 선물 중 매트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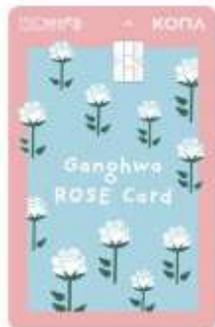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김귀현 어르신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노인분들에게 잘하는 강화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 최백하 기자



# 여성청소년 강화반 군기 보편지원사업 보건위생용품 보편지원사업

| 기간 | 2022.06.13(월)~7.1(금), 3주간

상반기에 신청 못했다면  
"로즈카드"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강화군 주소지인 만9세 ~ 만18세 여성청소년으로  
**상반기(3월) 미신청자** (상반기 신청자는 자동 연장됩니다.)

### 사용처

관내 편의점(GS25, CU, 이마트24, 세븐일레븐)



## 강화군 제2기 주니어외교관 모집

국제교류에 관심있는 강화군 청소년 모두 모여라!



### 활동개요

- 활동기간 2022년 7월 - 12월
- 활동주기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모임
- 활동내용 강화군 국제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교류·홍보활동 수행

### 모집내용

- 모집기간 6. 13.(월) - 6. 24.(금)
- 모집대상 관내 중·고등학생 20명
- 접수방법 이메일, 등기우편 접수

기획예산과 교류협력팀 032)930-3312

###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	내용	예약방법
소창 스탬프 체험	소창원단에 스탬프 이용 손수건 만들기	사전-당일
한복 체험	전통의상 한복 착용 및 사진 체험	사전
차 시음회	강화 특산품 순무차 시음	당일
직조 시연	소창 직조 및 연경 관람	당일

\* 전 프로그램 상시 진행 중(월 휴관), 체험비 무료



## 강화소창제험관 프로그램 운영 재개

운영 재개일 2022. 6. 1.(수)~



# 정관장

## 정관장 강화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 5 1층  
M. 010.5313.3368

대표 김형식

032) 933.2304



##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